

감정을 놓는 황혼기.

때론 놓지 못하여 마음속 미련하게 남아 사람의 마음을 종이 찢어 버리듯 만들곤 한다.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부서진 가구들, 사방팔방 어지럽혀진 사진들과 슬피 떨어져 있는 반지, 책상에 놓인 수많은 편지와 울리는 휴대폰. 그리고 그 가운데 기이할 정도로 상황과 동떨어진 밝고 희망이 가득 실린 풋풋한 모습이 아름다운 여자가 웅크린 고양이 같이 누워 있었다. 기지개를 켜며, 세상만사가 다 귀찮은 듯한 표정으로 간신히 일어선다. 그리고 쓰레기장과 같은 집안 모습을 한 번 둘러 보고는 더러운 방바닥과 별반 다를 게 없는 먼지투성이 침대 위에 누운 남자에게 천천히 다가가 얼굴에 몸을 넘어지듯 기울며 큰소리로 외친다.

“스스읍... 일어나!!!”

“...끄으읍. 뭐.. 뭐야?”

귀를 뚫는 듯한 호탕한 목소리에 의해 잠에서 깬 하늘이는 정신이 혼미해지는 기분이었다.

“후후.. 역시 아침에는 휴대폰 알람보다 내 목소리가 직방이라니까? 그렇지 않아?”

“...”

머리 쥐어박고 싶네. 진짜.

“....꼭이나 그렇겠다.”

날 선 목소리로 대꾸하며 침대에서 일어난 하늘이는 주변 널브러진 쓰레기와 옷가지들을 치우며, 책상 위에 놓인 휴대폰을 들었다.

“뭐야? 부재중 전화가 왜 이렇게 많이 쌓였지?”

“그거 아까부터 계속 울리던데? 누구누구씨가 빨리 일어나서 받았으면 전화가 10번이나 넘게 울릴 일은 없었겠다. 그치?”

“...”

말괄량이 같은 모습과 약 울리는 듯이 웃는 여자를 보며 하늘이는 애써 주먹을 내리며 분노를 심호흡과 함께 내려보냈다.

손에 든 휴대폰에 쌓인 부재중 전화를 보며 살짝 미안한 감정과 함께 하늘이는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괜찮냐?]

“어? 당연히 괜찮지. 아 그리고 전화 못 받은 건 미안하다.”

[...아니 그건 상관없는데. 하, 그 좀 큰일이 있었잖아. 내가 출장 갔다 온 사이에 말이야.]

한숨 가득한 목소리로 무슨 큰 사고라도 겪은 것처럼 어두운 목소리가 전화기에 울려 퍼졌다.

“음...? 딱히 무슨 일 없었는데...”

[...있었잖아. 좀. 많이 큰 사건.]

“없었다니까?”

[쑈. 하. 일단 얼굴 좀 보고 대화하자. 저번에 갔던 커피집 알지? 거기서 12시 정도에 만나자.]

“알겠어. 끊어”

[그... 힘내라.]

뚝.

“뭐야 싱거운 자식.”

약간 상태가 안 좋아 보이는, 친구의 전화를 받으며 묘한 기분만 드는 하늘이었다.

“서둘러 준비해야겠네? 벌써 12시가 다 되겠어?”

“그러네.”

“아까 일찍 일어나서 전화 받았으면 여유로웠을 텐데. ㅋㅋ.”

“...조용히 해”

빠르게 샤워를 마치고 옷을 깔끔하게 입은 후 가볍게는 보이지 않은 큰 가방을 챙겨 밖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

집 밖을 나오자 가을의 약간 쌀쌀한 바람이 반겨주었다 그렇게 한 발짝씩 걷어 나아가자 얼마 지나지 않아 시내가 눈에 들어왔다. 평소같이 웃으며 대화하고 장난도 걸으며 걷던 둘이지만 오늘은 유독 기이하게도 사람들의 시선이 조금씩 모이기 시작했다. 하늘이와 여자는 신경조차 쓰지 않았지만 다른 이가 보면 이상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을 것이다. 일상에 입을 옷이 아닌 상복과 겹고 큰 가방까지 멘 모습은 이질감만이 들 정도였고, 그 옆에 선 여자는 더하였다고 생각할 것이다. 흰 원피스만 입은 모습은 보이면, 사람마다 열기 딱 좋아 보이고, 정신병이라는 단어밖에 떠올리지 못할 정도로 기이하였다. 확실히 눈에 띄는 데에는 이유가 있는 법이다. 그런 사람들의 시선은 보이지도 않는 듯 두 남녀는 길을 걸으며 즐겁게 평소와 똑같은 일상을 보냈다.

“그래서 이번 축제는 그냥 물 건너 가버렸네?”

“...그 일만 안 당했어도 즐겁게 놀았을 텐데.”

축제 기간도 지난 지 오래라 볼만한 볼거리도 다 정리되어서 두 사람은 눈앞에 있는 보물을 놓쳐버린 기분이었다.

“...그건 미안해. 그런데, ..고의는 아니잖아”

“푸흐흐. 그래, 맞긴 하지.”

조금 우울한 대화를 금세 떨쳐 내버리고, 다시 즐겁게 대화를 나누었다.

하늘이와 여자가 대화를 나눌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이 점차 기이한 것을 본 것처럼 눈매가 좁혀지고 시선이 점차 더 몰리고 있었지만, 남들이 쳐다보든 말든 두 사람은 신경조차 쓰지 않고 둘만의 세계에 갇힌 듯 대화를 나누었다.

“아 맞다! 요번에 새로 나온 다이어트 제품 평가가 좋던데? 혹시.”

“안돼”

“아 왜!?”

“너 저번에도 제품 평만 보고 샀다가 효과 전혀 보지도 못하고 돈만 날렸잖아”

하늘이는 조용히 과거를 떠올렸다. 팔랑귀에다가 좋아 보이면 저렴하거나 비싸더라도 우선은 구매 버튼을 누르는 저 황소 같이 앞 뒤 안 보고 달려드는 성격에 물건 자기가 보고 사놓고 맨날 사기당했다며 위로해달라는 것까지. 참. 웃긴 이야기다.

“아! 이번에 다르다고!”

“다시 한번 더 말하는 데 안돼. 애초에 뽕 살도 없으면서 뭘 다이어트야?”

“우이씨. 눈치 없는 놈.”

“허 참. 그게 그 주제로 넘어갈-”

통.

골목길을 지나가는 순간 어느 한 아이가 하늘이의 몸에 발목이 붙잡혀 넘어지듯 부딪쳤다.

“아. 죄. 죄송해요...”

기어가는 목소리로 사과를 전하는 5살도 채 안 되어 보이는 여자애가 울먹거리기 시작했다.

“난 괜찮아. 꼬마는 괜찮은 거니? 어디 안 다쳤고?”

“.....네!”

하늘이가 꼬마를 일으키며 묻자. 꼬마는 곧바로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 울먹거리던 표정은 금세 어디론가 달아난 듯 그 나이와 맞는 해맑은 표정으로 힘차게 대답하였다. 이 상황을 보며 여자는 하늘이에게 장난과 훈계를 적절하게 섞으며 말을 뽕족하게 세워 쏘아냈다.

“으이구. 넌 무슨 골목길에 나온 애 하나 못 보냐? 애 다쳤으면 어찌려고 그랬어?”

“아. 아니 아무리 그래도 대화하면서 골목에서 갑자기 나온 걸 어떻게 봐 내가.”

하늘이와 여자의 장난이 감도는 대화에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던 아이는 고개를 기울며 대화에 의문이 실린 표정으로 말을 꺼내려는 그 순간.

“예린이!! 너 갑자기 어디로 사라진 거니. 깜짝 놀랐잖아. 엄마 손 꼭 잡고 다니라고 했지.”

아이의 엄마로 보이는 여성이 하얗게 질린 모습으로 황급히 달려와 아이의 옷매무새를 잡아주며 아이를 다그친다.

“엄마 이 오빠 좀 이상해.”

“지나가는 사람한테 무슨 소리니!? 예린이!”

그 모습을 본 하늘이와 여자는 아이의 말에 황당하면서도 당황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그 상당히 특이한 애네. 그치..?”

“..그러게 특이한 애네.”

그런데 이제는 아이의 엄마로 보이는 여자까지 갑자기 살짝 겁에 질린 표정으로 아이를 감추듯 등 뒤로 데려갔다.

“그, 그러면 ...저희는 가보겠습니다. 아이 일은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

나름 환하게 웃으면서 보냈는데도 왜 그렇게 겁에 질린 것처럼 달아난 건지 도무지 모르겠다.

“세상엔 참 다양한 사람이 있는 것 같다. 안 그래?”

언제나 해맑고 에너지 넘치던 여자조차도 급격하게 피곤해질 정도로 마치 폭풍이 휩쓸고 간 기분인 둘이었다.

“...그러게. 서둘러 가자. 여기에 시간을 꽤 잡아먹어 버렸으니 좀 빨리 움직여야 할 것 같네.”

“응! 얼른 가자!”

10초도 지나지 않아 곧바로 본래의 텐션과 모습으로 회복한 여자는 다소 과장된 몸짓으로 걸음걸이를 어린아이같이 크게 움직이며 나아갔다.

‘귀엽네.’

...

약속 한 시간이 거의 다 되어 갈 무렵 카페에 도착하였다. 조용하고 깔끔해 보이며 은밀하게 대화하기 딱 좋아 보이는 곳이다. 카페의 문을 열고 들어가자 카페 제일 큰 무렵 작은 자리에 크지도 작지도 않은 키와 차가운 얼굴에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친구 종현이가 앉아있었다.

“...오랜만이다.”

다가가 가볍게 손을 흔들어 인사하자 종현이는 깊은 바다같이 어두운 목소리로 답해주었다.

“그러게 이게 몇 달만이나? 거의 8달 가까이 되지 않았냐?”

“...어 그렇지.. 출장에 직장업무에 개인사까지 겹치다 보니 만날 틈이 없었다.”

“괜찮아 나도 마찬가지니까.”

종현이는 이내 아까보다도 어두운 표정으로 폭탄을 건드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 오늘 만나려던 목적이기도 했는데.. 얼마 전에 말이야 좀 일이 있었잖아? 그래서 좀 괜찮은지를 보려고 왔어.”

“응? 아까 전화했을 때도 말했잖아. 괜찮다고?”

“어 알아. 알아들었는데. 너, 솔직히 지금 하나도 안 괜찮아 보이거든..?”

종현이의 맞은편 하늘이는 빈말로도 괜찮아 보이지 않았다. 눈 밑의 선명한 다크서클, 초췌한 얼굴에 말라가고 있는 몸과 멍해 보이는 죽은 눈매는 사정을 모르는 사람에겐 병에 걸려 망가져 가는 환자로밖에

보이지 않았고 사정을 아는 이들에겐 그저 안타깝다고 비극이라는 생각만이 든다.

“그리고 옷차림은 또 뭐야 그 큰 가방은 또 뭐고.”

“아아. 되게 깔끔하지 않아? 데이트 복장으로?”

“....세상 어떤 사람이 데이트 복장으로 상복을 입고가.”

만났을 때 하늘이의 모습은 종현이의 예상보다 훨씬 더 심각했다. 데이트 복장으로 상복부터 시작해서 죽어가는 물골과 자꾸 다른 좌석을 살피며, 소곤소곤 이상한 대화를 하지를 않나. 그리고 은근슬쩍 눈을 돌리며 대화를 피한 저 가방까지. 언제나 활기차고 웃음과 즐거움이 흘러넘치던 하늘이만을 봐온 종현이는 점점 울분이 넘치기 시작했다.

“...2주만에 모든 걸 터는 건 불가능하다는 건 알아. 하늘아 근데 적어도 우리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알잖아. 메어만 있어봤자 답 없는 거. 적어도 너 자신 정도는 챙겨야지. 그리고 돌아다니는 게 정상은 아니잖아?”

“아니. 종현아 오늘 아침에 전화부터 지금 말하는 것까지 뭐라는 거야? 나 정상이야. 메어있긴 뭘 메어있어? 왜 그래. 도대체?”

그 말을 듣자 처음 만났을 때부터, 아니 오늘 전화에서부터 눌러온 종현이의 감정이 결국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뭐? 지금 뭐라고 하는 거냐고-!?”

종현이는 한숨과 함께 약간의 화와 죄책감이 뒤섞인 말을 폭풍우처럼 내뿜기 시작했다.

“...너가 겪은 게 정말로 힘들고 슬픈 거 알아. 솔직히 사람 하나 무너질만하기도 해. 그런데 니가 지금 이러는 거 그 애가 좋아하겠어? 아니잖아. 난 너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또 어떤 생각으로 있는지는 몰라. 그런데 그게 너의 몸을 이렇게 망칠 이유가 되지 않잖아! 왜 그러는 거야? 그 애 죽음이 그렇게 충격인 거야? 말하는 것도 옷차림도 모습도 볼 때마다 마음이 으스러져 가는 것 같다고!”

땀이 무너지듯 흘러나오는 감정. 제일 친한 친구가 힘든 상황에 곁에 있어 주지 못한 죄책감과 현 상황에 놓인 하늘이에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과 슬픈 감정이 땀도는 와중에, 이렇게 자기의 몸을 망치고 있는 하늘이의 모습을 보자. 울분이 터져 나오는 종현이었다.

“왜, 왜 그러는 거야 종현아? 나 괜찮아. 너가 말하는 애도 지금 옆에 있잖아? 죽긴 뭘 죽어?”

“또 뭘 소리야? 진짜 미치기라도 한 거야? 여기 카페에 나랑 너 둘밖에 없거든?”

놓인 탁자. 좌석은 셋이었다. 마주 보며 앉은 두 사람. 그리고 여자 한 명. 종현이는 그저 이상한 소리만을 하는 하늘이에 모습에 돌아버릴 것 같은 심정과 친구가 정말로 미쳐버린 건가 싶은 두려움이 머릿속을 휘저었다.

하늘이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 내 모습이 뭐가 어떻다고. 멀쩡하기만 한데 그녀도. 옆에 잘만 앉아있는데 왜 그런 소리를 하는 건지. 모든 게 다 이해가 안 됐다.

“종현아 너 오늘 좀 이상한 것 같다? 아까부터 계속 헛소리하고. 계속 이상한 소리만 할 생각이면 나간다? 오늘 가야 하는 데가 많아서.”

종현이는 열이 오른 듯 깨질 듯한 머리를 부여잡고 한숨과 함께 하늘이의 모습을 한번 훑듯 쳐다보며 말하였다.

“...그래 내가 열이 오른 것 같다. 가 망할 놈아. 힘내고. 힘들면... 전화해라.”

종현이는 앉은 자리 그대로 한숨만을 내쉬며, 고민거리와 걱정만 쌓인 얼굴을 쓸어내리며 턱에 손을 기대어 심각한 표정으로 생각에 잠겼다.

“...힘내야 될건 너 같은데.. 수고 해라 간다 난.”

“...”

종현이는 나가는 하늘이의 등을 쳐다보며, 정신병에 걸린 듯 이상하기 그지없던 하늘이의 모습을 머릿속에서 다시 떠올리기 시작했다.

카페에서 나오자마자 평소 모습과는 달리 조금 조용했던 여자가 바로 입을 열었다.

“...종현이가 오늘 좀 이상했던 것 같지?”

“..그러게. 더위라도 먹었나?”

“가을인데 더위를 어떻게 먹니.”

“농담이잖아.”

헛웃음을 흘리며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쳐다보는 여자였지만 하늘이는 애써 무시하며 다음 갈 곳을 정하였다.

“슬슬 배고프지 않냐? 밥 먹으러 갈까?”

“어디로 갈 생각인데?”

“요 근처 새로 생긴 일식집 있는데 거기로 갈까?”

여자는 하늘이의 말을 듣고 턱에 손을 받치며 살짝 심각한 표정으로 고민을 하였다.

“아니! 다른 데 가자!”

“..너가 아는 음식점이 있었냐?”

“히. 날 뭘로 보고 당연히 있지!”

하늘이는 의문 가득한 표정을 지었다. 멀쩡히 숨을 쉬었을 땐 집에만 있는 폐인 같던 집순이인데 애가 아는 집이 있나? 하는 생각에 잠겼고, 곧이어 여자가 입을 열었다.

“돈 까스집 가자!”

“...따라와 그냥.”

그래. 그러면 그렇지.

이번에 하늘이가 여자를 장난이 감도는 눈빛으로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면서 손을 내밀었고, 여자는 애써 무시하며 손을 조심히 맞잡았다. 하늘이의 맞잡은 파트너의 손에 희미한 모습이 감돌며 한 사람은 걸어 나갔다.

행복한 미소가 늘 입에 걸려있는 이 커플의 모습이 남들의 눈에 보이면, 누구나 다 참으로 즐거워 보이는 커플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천천히 산책하듯이 산뜻한 마음으로 걸으면서 하늘이는 내심 이 일상이 계속해서 유지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기 시작하였다.

카페에서 해가 정오를 지나 서서히 넘어갈 때쯤 하늘이가 추천한 식당에 도착하였다.

도착함과 동시에 하늘이는 상당히 피로감이 쌓이기 시작했다, 그 일 이후로 계속되는 누적되는 피로와 종현이와의 대화 이후에 피로감이 더더욱 가중되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됐고, 그냥 바닥에 드러눕고 싶은 마음을 참아 가며 자리에 앉아 식사 주문을 하였다.

“야.야 방금 저 주문 받는 사람 표정 봤니? 왜 그렇게 썩은 표정을 다 짓고 난리냐?”

그 말을 듣고 하늘이는 생각하였다. 들어오는 순간 옷차림과 큰 가방으로 한 번, 그 다음 다 죽어가는 물골에 한 번, 시선이 물리면서 직원의 표정이 점점 무너져가더니만 결국 주문받을 때 터진 모양이다.

“여기 직원 서비스 왜 이래? 나중에 제대로 따져야겠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뭐 딱히 신경 쓰이는 정도도 아니고 밥이나 먹자.”

“흐으음... 니가 그렇다면야. 알았어.”

음식이 나오자 여자는 마치 결신이라도 든 듯 음식을 빠르게 흡입하기 시작하였다.

“야. 좀 천천히 먹어 뺏어 먹는 사람 없으니까.”

“그치만 일식은 오랜만이라고 이렇게 마음 놓고 막 먹는 게 얼마 만인지 넌 알아?”

“아니. 몰라. 자꾸 말하면서 먹지 말고 제대로 먹어.”

여자는 음식을 한 번에 삼키더니 목이 막힌 듯 가슴을 두들기었고, 하늘이는 약간은 슬픈 표정과 미소로 물을 건네주었다. 여자는 물을 단숨에 벌컥벌컥 마시더니 말하였다.

“푸하. 아 진짜 요즘에 일이 너무 많기도 하고 이렇게 같이 외출한 적도 적었잖아. 그리고. 이럴 때만이라도 마음껏 먹어야 하는 거 아니겠어?”

“그래. 백번, 천 번. 옳은 말이다.”

쓴웃음과 함께 하늘이는 본인의 뒤통을 전부 처리한 후 무거운 몸을 일으켜 세우며 계산대에 올랐다.

“충 삼만 이천 원입니다.”

“여기요.”

카드로 계산 후 곧장 햇살이 감도는 출입문으로 나가려던 하늘이는 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직원으로 보이던 사람이 잠시 하늘이를 불러 멈춰 세웠기 때문이다.

“...저. 손님 음식 남기셨는데요?”

“그래서요?”

하늘이는 피곤함과 순간 올라온 감정들로 인해 살짝 까칠한 태도로 답하였고, 그 모습을 본 직원은 약간 겁먹은 듯한 표정으로 대답하였다.

“아, 아닙니다. 안녕히 가세요.”

“예. 뭐 수고하세요.”

하늘이의 나가는 모습을 바라보던 직원 동길은 곧장 테이블을 치우기 시작했다. 2인분을 시켜놓고 마치고 한 사람이 더 오는 듯 세팅을 하는 모습에 한 사람 더 오나 싶었는데. 그냥 본인 것만 먹고 그대로 나가 버렸다. 처음에는 음식을 남긴 것과 약간 사회와 동떨어진 모습에 뭐라 한마디를 올리려던 동길이였지만 하늘이의 대답과 분위기에 본인도 모르게 움츠리게 되었고, 결국 아무 말도 못 한 채 보내고 말았다.

‘..하 진짜 별 에 별 손님 다 보겠네. 정신병이라도 걸린 건가? 왜 자꾸 혼잣말에, 허공을 쳐다보는 거야... 소름이 다 돋네. 진짜.’

동길이는 테이블을 치우며 애써 괴상한 손님에 대한 기억을 물어버렸다.

...

밖을 나오자 해는 정오를 넘어 저물어 가고 있었다. 조금은 찬 바람에 하늘이는 옷과 가방을 한 번 정돈한 다음 발걸음을 옮겼다. 이러한 날씨에도 여자는 전혀 추운 기색도 없이 햇살같이 해맑은 표정으로 다음으로 갈 곳을 물었다.

“이번에는 어디로 갈 거야?”

“흠... 영화관 어때? 최근에 영화 하나 새로 나왔는데 다들 한번 보라고 난리더라.”

살짝 웃음기를 머금은 채 하늘이는 그녀의 말을 기다렸다.

“...으음 오랜만에 하는 데이트인데. 영화관이라... 재미없기만 해봐라.”

“푸흐. 재밌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영화를 안 본 건 너도 마찬가지인데 그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지 참 궁금합니다?”

마치 겨울의 한파와도 같은 싸늘한 눈빛으로 하늘이를 지긋이 쏘아 보는 여자였다.

‘하긴 애가 영화 추천받았다가 배신당한 게 몇 번인지.’

여자의 주변 친구들은 하나같이 영화 취향이 괴팍한지라 괜히 같이 불러갔다가 영화관에 안 좋은 추억만 잔뜩 생겨 버린 여자는 마치 목욕하러 끌려가는 고양이 마냥 하늘이에게 날을 세우며 경계를 하였다.

“왜. 그렇게 날을 세우고 그래. 걱정할 거 없어. 종현이하고 태진이, 개네 둘이 추천한 거야.”

여자는 하늘이가 말한 두 친구의 정상적인 영화 취향은 알기에 조금은 안심한 채로 하늘이의 손길에 따라갔다.

“...마음에 안 들면 각오해라.”

“엠편. 엄두가 있겠습니까.”

장난스러운 말투로 서로 대화를 오가면서 어느샌가 피로감이 조금은 가라앉은 둘이었다.

서로 손을 맞잡고 웃으며 걷다 보니 어느새 중심가에 도착하였다. 사람이 많은 곳이었기에 시선이 쏟아지는 것을 느낀 하늘이와 여자였지만, 늘 그랬듯 둘만의 세계에 다른 사람의 시선 따위는 들어오지도 못했다.

“그래서 말인데 개가 말이야-”

하지만 시선이 아닌 하늘이의 몸에 직접 부딪히며 둘의 세계가 깨졌다. 사람들이 주말의 행복에 중심가

에 어마 무시하게 물리게 되면서 접촉사고가 일어나기가 쉬웠다.

“아.!. 씨. 앞 좀 똑바로 보고 다녀!”

조금은 체구가 큰 편인 하늘이의 몸에 부딪히며 넘어진 남성은 하늘이에게 버럭. 얼굴이 잔뜩 익은 토마토처럼 붉어진 채 화를 질렀다.

“..아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앞을 잘 보고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너도 사과해야지..”

하늘이가 보기에는 여자의 몸과 하늘이의 몸 둘 다 부딪치며 넘어졌기에, 남성에게 사과하면서 여자에게도 사과하라며 조심하면서도 단호하게 말을 하였다.

“아. 알았어.. 죄송해요. 다음에는 앞을 잘 보고 건겠습니다.”

여자의 사과 이후 남성은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 살짝은 겁에 질린 모습으로 말을 하였다.

“아. 아닙니다. 저도 다음에는 주의하도록 하지요. 그, 그럼 전 이만”

남성은 서둘러 자리에서 벗어났다. 마치 무언가로부터 도망치듯.

“...왜 갑자기 저렇게 무서운 거라도 본 것처럼 헐레벌떡 뛰어가시는 거지?”

“뭐 급하신 일이라도 있으신 모양이겠지. 어서 가자 시간 놓치면 좀 그러니까.”

“그래!”

‘...’

아까의 충돌사고 일로 다소 감정이 무거워진 하늘이는 기분전환을 위해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고 얼마 안가 조금은 작은 영화관에 도착하였다.

“생각보다 빨리 왔네?”

“..뭐 빨리 오면 좋잖아. 어서 가자.”

영화관에 들어서자 인기 있는 영화들이 시간표를 가뜰 메우는 게 보였다. 조용한 분위기에 얼마 없는 손님. 깔끔한 인테리어와 귀여운 영화 장식물들. 여자의 마음이 살짝 들뜨기 시작했다.

주변을 살피는 것도 잠시 하늘이는 여러 환상에 빠진 여자를 끌고 영화관 티켓 구매를 위해 카운터로 향하였고, 카운터에서는 약간 소심해 보이는 여자가 불안한 눈으로 하늘이를 쳐다봤다.

“로스테일러 두 장이요.”

“네. 로스테일러 두 장 확인되었습니다. 20분 뒤에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혹시 팝콘도 되나요?”

“네. 물론입니다.”

“그럼 커플 세트로 하나 주세요.”

“...네?”

카운터에 선 현주는 방금 말 하나로 기분이 더더욱 오싹해지기 시작했다. 옷차림부터 눈길을 확 끌더니만 갑자기 허공에 손을 대질 않나 혼잣말을 중얼거리지 않나. 정신병에 걸린 사람처럼 행동하는 모습에 현주는 은근히 소름이 돋기 시작하였고 빠르게 주문을 받은 뒤 넘기자는 생각 하나만으로 티켓 예매를 빠르게 넘겼지만 방금 말 하나가 현주를 공포 속에 빠뜨렸다.

“..그 손님? 혹시 일행분이 곧 오시나요?”

“아니요? 옆에 있잖아요?”

하늘이의 말이 끝나자 카운터 직원의 손과 눈이 점차 눈에 떨 정도로 흔들리기 시작했다.

“..손님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저희가 아무리 외로워도 공기랑 연인이 될 수 없잖아요...? 하하.”

말을 웃음으로 끝마친 현주는 곧바로 자기가 내뱉은 말을 후회했다. 공포에 질려 살짝 맛이 간 듯한 말을 꺼낸 현주의 하얗게 질린 모습을 본 하늘이는 의문스러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그게 무슨 소리에요? 여기 옆에 있잖아요?”

“.....에..예?”

공포에 점점 먹혀가는 현주는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다. 이 정신병 환자를 무사히 보내려면 우선 자기부터 정신 차려야 한다고 필사적으로 머리를 굴리자. 몇 초도 되지 않는 짧은 시간에 현주는 답을 도출해냈다.

“..아 손님 저희가 원래 커플 세트를 지원하기는 했는데 그. 이벤트 기간만 해당되는 사항이라 아쉽게도 끝나버렸어요.”

“...아 그런가요? 흠 그럼 별수 없네요 일반 세트 2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일반 세트 2개를 받고 또 혼잣말을 하며 걷는 손님을 본 현주는 속으로 울먹이며 생각하였다.

‘공포영화보다 더 무섭네... 진짜.. 오늘... 잘했다. 현주야...’

“...? 저 사람 표정 왜 이래? 뭐. 울 것 같은데.”

“...글쎄? 영화나 보러 가자.”

하늘이는 약간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영화관에 입장하였다.

...

“아- 영화 진짜 재밌었다! 그치?”

“흠.. 개네들이 추천할 만하네.”

영화관에서 나오자마자 여자는 기지개를 켜면서 영화의 품평을 하였고 하늘이는 친구들의 영화 취향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았다.

“슬슬 날이 어두워지네?”

“..이제 딱 한 곳 더 들릴 시간밖에 없는 것 같은데.”

해가 정오를 넘어 슬슬 잠에 들 시간이 오고 달이 일어서는 기미가 보이자 하늘이는 약간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음... 아! 그럼 우리 거기 갈까? 우리 처음 만났던 곳!”

“거기 가자고? 너무 멀지 않아?”

“어차피 버스 타면 금방이잖아.”

“뭐 마지막 종착지가 거기면 나쁘진 않겠네. 가자”

“오예! 어서 가자!”

여자는 손을 높이 뻗어 가리키며 눈앞의 길을 힘차게 걸어 나가자. 하늘이는 웃음 지으며 강아지처럼 뒤따라 갔다.

도착한 버스 정류장과 버스 안에서 따가운 시선을 받긴 하였지만 하늘이는 전부 무시하였고, 이윽고 목적지에 도착하였다.

높은 언덕과 폭포와 그 옆에 수 놓인 꽃밭들. 그 위에 선 공원은 언제 봐도 장관이었다.

피로를 이겨내며 하늘이와 여자는 추억이 깃든 곳을 하나둘 살펴보며 나아갔다.

불어오는 바람, 코끝을 스치는 꽃향기, 바람에 흔들리는 풀 소리와 환호성을 내지르는 물과 함께 쏟아지는 폭포를 둘러다 보면 언덕에 자리 잡은 아름다운 공원이 눈에 들어온다. 몽환적인 분위기의 조형물과 형형색색의 벽돌이 수놓인 길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감싸는 자연경관까지. 그 모든 것을 눈에 담으며 걷다 보니 어느덧 공원의 정상까지 다다르게 되었다.

"진짜 오랜만이네. 여기?"

“...그치 거의 십 오 년 만인가.”

하늘이는 공원을 한 발짝씩 오를 때마다 오늘 가끔 보인 슬픈 감정이 나타나다가 사라지길 반복했다. 공원의 정상에서는 신전과 같이 성스러운 느낌이 감도는 모습으로 하늘이와 여자를 맞이했다. 벤치에 앉고 두 남녀는 밤하늘을 보았다.

점차 웃음기가 사라지기 시작한 여자는 하늘이를 보다 잠시 고민하는 표정으로 주변을 살피며 이내 입을 열었다.

"그때는 이렇게 땅거미가 지지는 않았는데, 밤에 오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다? “

별이 쏟아져 내리는 듯한 하늘을 보며 하늘이는 말하였다.

“...그렇네.”

하늘이의 감정이 점차 올라오기 시작했다. 약속했었던 날의 끝이 다가오자 오늘 아침이 아닌 2주 전부터 어떻게든 틀어막았던 피로도가 옛 추억과 슬픔에 힘입어 흘러넘치기 시작했다.

“아 진짜. 생각해보면 그때 너가 더 말썽꾸러기였는데. 이제는 왜 반대가 된 것이지?”

“...그때는 나만큼은 아니지만 너도 까탈스러운 성격이었거든. 그게 어른이 되고 더 커진 거겠지.”

“아! 그렇게 따지면 너는 더 꼬인 성격이 되어야지? 니가 나보다 더 심했잖아!”

“...몰라 성격, 극복한 거지 뭐.”

대화가 길어짐에 따라 하늘이는 눈이 점점 감겨줘 오는 것을 느꼈다.

“웃기시네! 나도 그러면 극복했다. 뭐...”

여자의 말을 놓치지 않기 위해 버티던 하늘이의 모습을 본 여자는 흐느적거리며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 하늘이를 천천히 무릎에 눕히며 머리를 쓸어주며 다시 입을 열기 시작했다.

“여기. 별이 참 예쁜 것 같아. 낮에는 꽃이 참 예뻤는데. 밤에도 이렇게나 아름다운 곳이었네. 밤낮으로 볼거리가 이렇게나 넘치니까 될 수 있으면 매일 오고 싶은 곳이야. 그치..?”

언제나 밝은 표정을 고수하던 여자도 어두운 밤이 오고, 약속했었던 날의 끝이 다가오자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표정을 지으면서 수면 아래에 잠긴 감정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하늘아 우리 왜 이렇게 된 걸까...? 우리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끔찍하게 만드는 걸까.”

“...”

하늘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있지.. 하늘아, 이젠 이런 식으로 일상을 보내봤자. 너만 더 힘들 거야. 그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마지막 작별을-”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한 여자의 말을 조용히 경청하던 하늘이는 피로가 극에 달한 것을 느끼게 되었다. 여자의 말소리는 점차 흐려져 갔고 이내 눈이 천천히 감기면서, 옛 기억이 하늘이의 꿈에 깃들었다.

...

5살. 사회적 활동에 진입하기 시작하는 시기. 그 시절 하늘이는 솔직히 누가 보더라도 괴짜에 가까운, 장난이 넘쳐흐르는 보육원의 아이였다.

"하하! 내 공을 받아라!"

"아악! 강하늘! 너 진짜!"

다소 과격한 장난부터 시작해서.

"애들아-! 선생님 안경을 어디에 숨긴 거니!"

"저는 몰라요. 크크."

조금 심한 장난까지. 그 시절에는 뭐든 즐거웠었다.

그런 천상 말썽꾸러기인 하늘이가 조금은 바뀌기 시작한 건 그 소풍에서의 첫 만남이었다.

보육원에서 5-6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소풍을 준비하는 날, 단지에서 보육원이 꽤 몰려있기도 하여서 다 같이 한꺼번에 묶어서 함께 연합 소풍을 가기로 하였다.

아이들이 이렇게나 많이 모인 걸 처음 본 하늘이는 장난을 머금은 미소가 입에서 떨어지지 않았고 처음으로 버스를 탄 하늘이는 굉장히 들뜬 마음이었다.

소풍에서 온 다음 지루한 활동들이 끝나고 드디어 자유시간이 주어졌다.

지루한 활동에서 해방된 하늘이는 날아오르는 듯한 기분이었다.

지나가는 친구 머리를 때리고 도망가기도 하고 놀고 있는 아이의 곁에 가서 망치기도 하고 탁자와 의자, 조형물을 사이를 뛰어다니는 등 온갖 장난을 치며 망나니처럼 사방팔방을 날뛸 때, 하늘이의 눈앞에 멍해 보이는 뚱뚱한 어린애가 이리저리 흐느적거리며 걷는 모습이 보였다. 그 모습을 본 하늘이는 악동처럼 웃으며 곧바로 행동을 개시하였다.

"크흐흐..!"

"끼악!!"

병아리 같은 비명과 함께 넘어진 어린애를 보며 하늘이는 깔깔대며 웃기 시작했다. 이윽고 다소 똥똥해 보이는 멍한 아이는 울음을 터트리기 시작했다.

"으아아앙!! “

본인과 동년배인 어린애가 울자 하늘이는 크게 당황하였다. 본인이 살던 보육원에서는 하늘이가 어떤 애인지 잘 알기에 다들 무시하거나 반격을 하거나 하였지만 다른 보육원 아이들에게 하늘이의 장난은 그저 폭력일 뿐이고, 이런 상황을 겪어본 적 없던 하늘이는 이 상황에 그저 우는 아이 곁에서 뻔뻔하게 서 있을 뿐이었다.

"...? 어? 왜 울어? 야. 남자가 이런 거 가지고 울면 안되지? 아니. 괜찮아? 어..? 이.이게 아닌데. 어쩔하지..."

하늘이는 상황에 맞지 않는 헛소리를 중얼거리며 그냥 무시하고 이동하려고 하였으나 하늘이의 말과 행동에 아이는 더더욱 울기 시작했고 하늘이는 이리저리 발을 동동거리며, 어찌지라는 말만을 반복하던 그때.

퍽.

"아악!"

갑자기 날라온 슬리퍼에 머리를 얻어맞은 하늘이는 이내 눈을 부라리며 고개를 돌렸다.

"누구야!"

"나야."

태연하게 본인이 날린 슬리퍼를 도로 신는 다소 차가워 보이는 여자애가 서있었다.

"이게. 뭐 하는 거야? 갑자기 사람 머리에 슬리퍼를 던지고 그래!"

"그럼 갑자기 사람 발 걸어서 넘어뜨린 너는 뭔데?"

그 말에 화가 얼굴 가득 드러낸 하늘이는 입을 다물었다.

"갑자기 수현이 머리를 때린 것도, 우진이 블록 부순 것도 탁자 위에 뛰어다니는 것도. 다 뭔데?"

"그.. 그냥 장난-"

"장난? 개네들은 절대로. 장난으로 안 볼걸? 다른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놀아야지. 다 망치고 다니는 걸 누가 보기 좋아하겠어!"

인상을 쓰며 버럭 화를 내는 여자애의 모습에 쭈꾸리가 된 하늘이는 여자애의 일침에 한마디의 반박도 하지 못했다.

내가 그렇게 심했던 건가..

본인의 태도를 약간이지만 돌아보면서 반성하는 태도가 올라오는 하늘이에게 여자애는 말뚝을 박았다.

"어서. 유성이에게 사과해. 난 적어도 니가 사과는 하는 남자애라고 생각하니까."

그 말에 눈물을 그치고 여자의 옆에 선 유성이에게 쥐구멍에 기어가는 소리로 사과를 하였다.

"미.미안해."

"안 들리잖아 더 크게 사과해야지! 아까 남자 가지고 뭐라하더니. 정작 본인이 되니까 아주 병어리가 났어?"

다소 시니컬하게 찢러넣는 여자애의 말에 열이 오른 하늘이는 이내 제대로 정숙하게 고개를 푹 숙이며 사과를 하였다.

"미안해!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을게!"

"아.아니.. 난 괜찮아."

"뭐 그 정도면 나쁘지 않네. 뭐 그럼 사과도 받았잖다. 유성아. 아까 혜은이가 너 찾는 거 같더라? “

” 어? 진짜? “

” 그래 어서 가봐. “

우는 모습은 언제고, 밝게 그 나이 때와 맞는 미소로 뛰기 시작하는 유성이를 보던 여자애는 이윽고 하

늘이를 지나쳐 갈 길을 가려던 순간, 누군가의 손이 재빠르게 움직였다.

여자애의 손목을 붙잡고는 하늘이는 말하였다.

"...너. 이름이 뭐야?"

"오호.. 보복이라도 할려고?"

하늘이의 이마에 십자 빗줄이 솟으며 화가 끓기 시작했으나 하늘이는 애써 화를 눌러 말하였다.

"그런 거 아니거든!"

"풋. 그럼 너부터 말해봐 너 이름 말하면 나도 내 이름 말할게."

여자애는 눈꽃같이 웃는 모습으로 하늘이에게 말하였고, 하늘이는 당당하게 이를 파득 물으며 입을 열었다.

"강하늘이야."

그런 모습에 웃음기가 한층 더 짙어진 여자애는 하늘이의 눈을 똑바로 보고는 말하였다.

"내 이름은 유--"

...

강하늘! 강하늘!

하늘이는 본인의 의식이 수면위로 천천히 떠오르는 걸 느끼며 큰소리로 내 이름을 부르는 여자의 목소리가 귀에 박히기 시작했다.

"강하늘!!"

"...왜 그래. 대체..."

하늘이는 사흘은 못 잔듯한 피곤한 표정으로 눈을 뜨며 여자에게 물었다.

"지금! 막차 시간 거의 다 왔어! 언제까지 누워만 있을거야!"

벌써 시간이 그렇게 흘렀다고..?

"음.. 미안해. 많이 피곤했나 봐."

그 말에 여자는 또다시 감정이 치솟아 올랐지만 애써 감정을 누르며, 하늘이를 이끌고 서둘러 공원을 내려갔다.

서둘러 공원을 내려가자 다행히 버스 시간에 늦지 않을 수 있었고, 버스 안에서 한 사람은 조용히 숨을 고르기 시작했다.

"큰일 날 뻔했네. 고마워 덕분에 살았네."

그 말에 여자는 슬퍼 보이는 웃음으로 하늘이에게 답하였다.

"뭘. 별거 아니야."

한산했던 버스에서 내리고 곧장 집으로 발을 옮기기 시작했다.

생기 없는 집에 들어오자 하늘이는 오늘 집에서 나올 때부터 함께한 가방을 내려놓고는 잠시 한숨을 내뿜기 시작했다. 집 밖에서의 본인의 태도, 종현이와의 만남, 꼬마와 부딪친 남자, 그리고 음식점에서와 영화관에서의 자신의 행동이 남에게 어떻게 보일지를 생각했다.

"...누가 봐도 정신병자네 완전..."

하늘이는 쓴웃음을 내뿜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조심스럽게 가방을 열기 시작했고, 조심히, 또 조심히 한 유골함을 꺼냈다.

故 유은하

소중한 조각품을 다루듯 안전하게 탁자 위로 유골함을 올리자 슬픈 기억이 또다시 밀려오기 시작했다. 사실은 알고 있었다. 나의 가장 소중했던 친구이자 사랑했던 가족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을, 종현이와의 전화는 내가 애써 은하의 죽음을 무의식에서부터 부정한 거였고, 아이의 의심은 당연한 거였으

며, 음식점과 영화관이나 주변 모든 사람의 반응 또한 당연한 거였다. 왜? 그야 그녀는 내 눈에만 보였으니까.

종현이와의 대화에서 나는 필사적으로 부정하고 또 부정했다. 이미 망가질 때로 망가져 방어기제로 어떻게든 은하의 죽음을 부정한 걸지도 모른다. 또 이러한 비현실적인 현상이 내게 오기도 하였기에 어쩌면 나는 이를 변명 삼아 그냥 모든 걸 외면하기만을 했던 것뿐일지도 모른다. 은하의 죽음 이후 모든 게 멈춘 내 인생이 다시 흐르기 시작한 것은 참으로 웃기게도 은하의 복귀였다.

누가 온 지도 기억이 안 날 만큼 정신이 나간 상태로 한 짧은 장례식 이후 나홀이 되던 날 나는 자살시도를 하였다. 어차피 은하가 없는 곳에 내가 있을 곳은 없었으니까. 밧줄을 걸어 목을 달려고 한순간. 아직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른 채 방 한쪽에 둔 유골함이 빛나기 시작했다. 강렬한 빛이 내 눈을 가린 순간 내 눈앞에서 기적이 일어났다. 은하가 되살아 난 것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되살아 난 게 아니라 그저 고요하게 유골함 위에 떠 있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그 모습을 보고

눈이 터져 나오는 듯이 깜짝 놀라야 정상이지만 은하의 죽음에 정신이 몰릴 때로 몰린 하늘이에게는 마치 기적과도 같이 은하가 살아온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었다.

이윽고 천천히 은하가 내려오며 하늘이를 끌어안았다. 그것만으로 하늘이는 여태까지 참아오던 모든 울분을 토해내기에는 충분하고도 남았다.

정신이 들고 감정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기 시작하면서 하늘이는 본인의 이성이 천천히 돌아오는 걸 느꼈다.

말이 안 되지 않은가? 그녀는 이미 죽었는데. 내 눈앞에서 숨이 멎는 걸 보았는데. 이렇게 멀쩡히 살아 숨 쉴 리가 없다는 걸. 알고 있지 않은가.

그럼 예도 하늘이는 이성이 가리키는 모든 걸 부정하고 그저 본인의 감정이 가는 대로 행동하였다. 평소 일상과 같이 그녀와 행동하고 웃고 떠들고 장난치며 살았으나 그 모든 생활의 한 부분에는 괴리감이 늘 뒤따라왔다.

이런 식으로라도 하늘이는 늘 그녀와 함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 그녀가 갑자기 사라지기 전까진.

은하와 다시 함께한 지 사흘이 지났을 때. 갑작스럽게 은하가 흐릿해지더니 눈앞에서 사라졌다.

미친 듯이 집을 뛰어다니며 날뛰다가 지쳐 잠들어 다음날이 되던 날 은하는 다시 내 눈앞에 나타났다. 본인이 이곳에 있을 시간이 점점 짧아져 지는 것 같다는 말에 하늘이는 세상이 무너진 듯한 표정으로 절망하였다.

어느 마음속 한구석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을 거다.

산자가 죽은 자와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쯤은. 알고 있었지만 이러한 현실에 절망감이 마음을 먹어가는 건 막을 수가 없었다.

후회에 잡아 먹혀가는 하늘이를 본 은하는 이내 하늘이의 손을 꼭 부여잡고 눈을 또렷하게 쳐다보았다. 은하는 본인의 슬픈 감정들을 웃음으로 감추면서 약속하였다. 다음 주에 같이 데이트 한 번 하자라고, 그 마지막 약속에 하늘이는 무거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현재에 이르렀다.

은하는 집에 오고 어느 순간 사라졌다. 열흘 전부터 점점 짧아지더니. 오늘에 이르면서 하루도 다 가지도 않고 사라진 모양이다.

모레, 어쩌면 내일. 다시는 볼 수 없게 되겠지. 그러한 생각이 머릿속에 감돌자. 맨정신으로는 버티기가 힘들다는 변명으로 오늘도 술을 꺼내었다.

"...이것도 이제 끊어야 하는데."

술은 입에 대지도 않은 삶을 살았지만 최근 들어 유독 늘어난 술을 보며 하늘이는 헛웃음과 함께 술을 들이켰다. 점차 올라오던 감정들이 술에 의해 짓눌릴 때쯤.

멍동.

초인종 소리가 울려 퍼졌다.

무거운 족쇄와 같은 피로감이 하늘이를 짓눌렀지만, 간신히 다리를 펴며 문 앞에 다가가 말한다.

"...누구세요?"

목이 메인 듯한 목소리로 문 앞에 있는 사람에게 묻었고, 이윽고 비장한 목소리가 문 틈 넘어에서 들려왔다.

"나야 박종현."

"...종현아? 여기는 왜.."

"일단 문 좀 열어봐. 추우니까."

종현이를 집안에 들이고 따뜻한 차를 내놓으며 하늘이는 물었다.

"그래서 갑자기 내 집에 찾아온 이유가 뭐야?"

"...니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제대로 파악하고, 그리고 이제 완전히 이별하는 거 도와주려고 왔다."

"...무슨 소리야?"

종현이는 한숨과 함께 진지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내가 집에서 좀 곰곰이 생각해봤어, 아침에 전화로 너가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건 은하의 죽음을 부정하는 거고, 카페에서의 너 행동을 보면 마치 은하가 옆에서 살아 있다는 듯이 행동했던 말이지, 솔직히 아무만 생각해도 니가 정신병에 걸린 거 같긴 하지만 걸리는 게 좀 있었어, 표정하고 태도를 볼 땐 정신병이라기에는 거리가 있었고 죽음을 부정하면서 살아 있다는 듯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 유은하가 마치 옆에서 살아 있다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야. 그래서 묻는 건데... 지금 옆에 있나?"

종현이는 말을 하면서도 이게 맞나? 싶은 표정을 지으며 말을 끝마쳤고, 종현이의 말을 다 들은 하늘이는 쓴웃음과 함께 입을 열었다.

"...너는 나중에 탐정 같은 거 해도 먹고 살겠다."

"그 말은."

"맞아. 옆에 있었어. 지금은 없지만"

그 말에 종현이는 아리송한 표정으로 눈을 뚫어져라 쳐다 보며 하늘이에게 답을 요구했다.

그 모습을 본 하늘이는 이윽고 웃음이 한번 터져 나오게 되며, 한참을 웃던 하늘이는 이내 슬픈 표정으로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말하였다.

"....지금 그 말을 나보고 믿으라고?"

"아까 니가 한 말 그대로 따라가면 거의 비슷하지 않냐. 본인부터가 그런 생각 했으면서."

"그러네."

"가만 보면 니도 참 별난 구석 있다니까..."

하늘이의 말을 가볍게 무시하면서 종현이는 무언가 생각이 많아 보이는 표정으로 하늘이에게 물었다.

"언제. 완전히 사라지는 거야?"

"...몰라. 모래... 어쩌면 지금 바로 사라진 걸지도."

하늘이는 말을 하면서도 '어쩌면' 이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머리를 떠나질 않았다.

불안 증세가 나타나는 걸 보던 종현이는 이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개가 이렇게 순식간에 떠날 애는 아니잖아. 너무 걱정 하지마라."

정신이 흔들리기 시작한 하늘이의 생각을 바로잡아주며 종현이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벌써 가려고?"

"어. 너가 완전한 이별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게 생긴 거 같아서. 내일 내가 전화하면 유은하. 개 데리고 와. 제대로 마지막 작별인사 준비해 놓을 테니까."

그 말과 함께 종현이는 등을 돌려 집 문을 열었다.

"아. 마지막으로 오늘 왜 상복을 입은거야?"

"...글쎄 무의식 속에서 은하가 죽었다는 걸 받아들이라는 신호?"

"허."

헛웃음을 내뿜은 종현이는 이내 씩씩한 표정을 지으며 집을 나갔다.

종현이가 나가자 하늘이는 정말로 이제 마지막만이 남았다는 걸 직감하게 되었고,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감정을 진정시키며 침대에 몸을 누었다.

아침 해가 기지개를 펴고, 수많은 직장인이 출근길에 서며, 학생들이 학교에 발을 놓는 시간. 하늘이는 어제의 피로가 조금은 사라진 기분을 느끼며 침대에서 일어났다.

"옴! 안녕! 잘 잤어?"

은하는 언제나 그랬듯이 밝은 표정으로 일어난 하늘이를 보며 귀여운 말투로 아침 인사를 해주었다.

"...그래 너도 잘 잤어?"

잘 올라가지 않는 입꼬리를 간신히 올리며 하늘이는 은하를 웃음으로 마주 보았다.

"나야 뭐 늘 자는 느낌이지. 느흐흐."

"그러니."

늘 그렇듯 대꾸를 하고, 머리를 쓰다듬으며, 함께 웃고, 어지럽혀진 집을 치우며, 또 웃고, 조금 못된 장난도 치며, 언제나 계속되었어야 할 일상을 보냈다. 그렇게 늘 똑같은 일상인데도 어느샌가 시간은 정오가 되고 이별이 오기 점차 다가오기 시작할 때. 하늘이는 점점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똑같은 일상을 평생 같이할 거라고 생각을 하였었다. 같이 평생을 얼굴을 보며 결혼도 하고, 멀리 해외 여행도 하고, 자식도 가지고, 서로 얼굴 붉히며 화도 내고, 사과하고, 같이 산책도 하고 늙었을 땐 서로의 몸에 기대며 하루하루를 웃으며 지내게 될 줄 알았다. 생각이 깊어질수록 슬픔은 짙어져만 갔다.

방금 한 베개 장난이 웃겼는지 깔깔대며 환하게 미소를 피우는 은하를 마주 보며 웃던 하늘이는 조심히 조각상을 다루는 것처럼 오늘부터, 아니 그 전부터 쌓아놓은 미련이 똑똑 담긴 말들을 마음속에서 꺼내기 시작했다.

"...은하야 너가 보기엔 나는 지금 정상 같아?"

"아하하. 방금 그거 진짜 웃겼...."

순식간에 시끄러웠던 방이 조용해졌다.

조용해진 방에서 은하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아니. 전혀 정상이.. 아니지."

밝은 표정에서 점점 어두운 표정으로 떨어지며, 은하는 하늘이의 상태를 꼬집었다.

"누가 보더라도 반쯤 시체로 보이는 몰골, 정상적인 옷차림에는 거리가 있고, 다른 사람에 시선에선 아무것도 없는 허공과 대화하는 사람, 눈길을 확 끄는 큰 가방. 혼자인데 언제나 옆자리를 세팅하는 피자에. 혼자인데 커플 세트 시키는 미친놈. 혼자서 웃다가, 혼자서 우는 그런 사람. 그게 지금 너겠지. 하늘아."

은하는 말을 하면 할수록 점점 울 것 같은 표정을 짓으며 울분이 새어 나오기 시작했고, 그런 은하를 보던 하늘이는 모든 원인을 되새겼다.

"우리.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걸까. 그냥 이렇게 될 거였으면, 그날 죽는 게 나았을까? 은하야."

그 말에 은하는 눈을 찌푸리며 잘 내지도 않는 화를 버럭 내질렀다.

"..그게 무슨 소리야!? 사람이 죽었다고 같이 따라 죽는 머저리가 어디 있어!! 산 사람은 사는 거야. 죽은 사람은 죽는 거고. 당연한 사실이잖아. 하늘아. 너가 따라서 죽는다고 해봤자. 뭐가 더 바뀌겠니. 주변 사람들 눈물만 더 생기고, 친구들 마음만 더 찢어 버리는 거 아니냐고! 진짜.. 진짜. 나쁜 행동이잖아."

그 말과 함께 은하의 눈에 맺히기만 하던 눈물이 흐르고 은하의 마음속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나는 이미 죽었어. 하늘아. 그건 뭘 어떻게 해도 안 바뀌는 거잖아."

울기 시작하는 은하의 말을 들으며 하늘이는 무너지는 심정을 부여잡고 말하였다.

"...그래. 뭘 해도 못 바꾸는 거지. 그럼 남은 건 하나네."

꽃이 죽어가는 것같이 시들어져 가는 하늘이의 말에 은하는 눈물을 닦으며 똑바로 마주 보았다. 그리고 하늘이는 입을 열었다.

“너를 보내주는 거.”

그 말에 은하는 심장이 멎은 것 같이 놀랐고 이윽고 애써 그쳤던 눈물이 다시 흐르며 목을 메이는 것같이 숨을 떨면서 말하였다.

“...응 맞아. 그게 맞지. 다른 사람을 만나고, 일도 하고, 여행도 가고, 취미도 즐기고, 삶을 즐겨야겠지. 살아 있으니까.. 끄읏. 그게 당연한 거니까....”

어느샌가 주저앉아 흐느끼는 은하를 보며 본인 또한 눈물을 흘리며 마음속 한구석에 묻었던 끔찍했던 기억을 떠올렸다.

...

덥고 사람을 각종 시련으로 괴롭히는 여름이 지나고 지구온난화로 짧아져버린 가을이 올 때였다.

“아 진짜 드디어 여름이 다 끝나 가네.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은하야?”

[아. 나는 좀. 여름이 좋은 데. 겨울을 추워서 싫단 말이야.]

아직은 햇빛이 만개할 시간인 정오에서 나는 나무 그늘에 몸을 기대 은하를 기다렸다.

“허. 진짜. 신기하네. 난 여름이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뭐!? 여름이 얼마나 좋은데 물놀이에 기분 좋은 야영에 여행가기가 좋고 초목들이 풍성하게 피는 시기잖아! 얼마나 좋아.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장소, 바다가 제일 예쁘게 펼쳐지는 시간이잖아!]

“...그 바다는 가을이 제일 예쁘거든, 됐고 우리 약속시간 12시 아니었냐? 대체 언제 오는 거야?”

늘 그랬듯 약속시간에 20분 먼저 오는 하늘이와 20분 늦게 오는 은하. 둘의 갑을 관계는 언제나 뚜렷했다.

[아... 그. 마음에 드는 물건이 하나 있어서. 그거 좀 보느라]

“대체 언제쯤 새로운 변명을 들고 오는 거냐. 저번에 똑같이 물건 하나 본다고 25분이나 늦지 않았냐?”

[아! 미안해.. 지. 지금. 갈게]

“어휴. 사고 내지 말고 천천히 와.”

똑.

“애는 대체 언제 제대로 약속 지킬려나.”

고등학교 때나 지금이나 전혀 변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 하늘이었다.

공원에서의 첫 만남 이후 같은 고등학교에서 만나게 된 둘은 첫 만남에서의 사건을 계기로 말이 트이게 되었고 그렇게 점차 가까워진 둘은 현재 서로 없으면 못 살 지경에 이르렀다.

처음에는 첫인상과 많이 다른 서로의 모습에 당황하기도 하였지만 그래도 그것 또한 서로의 매력이 되어 주고 배려와 존중 끝에서 친구를 넘어 가족이 되어가던 둘은 이렇게 꾸준하게 데이트를 하였다. 그렇게 오늘도 언제나 와 같이 똑같은 데이트이자 일상이 되었어야만 했다.

“...”

‘오늘따라 유독 늦는 데..?’

20분을 넘어 40분이 가깝도록 오지를 않자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한 하늘이는 급하게 은하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연결이 되지 않아 삐 소리 이후-]

‘..무슨 일 난 거 아니야?’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난 하늘이는 주변 상가를 돌아다니니 시작했다. 은하가 자주 돌아다니는 것부터 해서 은하가 최근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가게까지 다 둘러보고 나서야, 하늘이는 본인이 너무 과민반응을 했다고 생각하며, 엇갈린 거라고 애써 스스로를 안심시키며 다시 약속 장소로 발걸음을 돌리며 약간은 빠른 걸음으로 서둘러 돌아가던 그때.

여기 사람 없어요?

어서 119에 신고해요!

뭐. 뭐야!!

세상에 이게 다 무슨 일이라...

사람들이 웅성웅성 비명과 함께 모여있자. 하늘이는 무언가 불길한 느낌이 들었고, 서둘러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가게 되었고, 그렇게 끔찍한 광경이 하늘이의 눈에 비치기 시작했다.

은하가 복부에서 피를 흘리는 그 광경을 말이다.

“...! 은..은하야!”

서둘러 은하를 끌어 안으며 주변 사람들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악에 받치듯이 소리를 내질렀다.

“어.어서!! 119에 전화해주세요!!”

“아..이. 이미 신고는 했다네.”

그 말이 듣고 하늘이는 은하가 출혈이 난 부분을 최대한 압박을 하며 최대한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였다. 어느정도 지혈을 하자 울분이 가득 찬 목소리로 은하에게 물었다.

“대..대체 어디서 뭘 하는 데 이 꼴이 된거야!!”

“...미...미안해..”

은하는 안색이 점차 하얗게 질려가며. 공포에 질려가듯이 덜덜 떠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나...나 죽는거..야?”

“아니! 아니 절대로 안 죽어, 안 죽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 말과 함께 피가 더더욱 흘러져 나왔다. 땅을 적셔가는 피에 하늘이의 안색도 점차 창백해져 갔다.

“..하..하늘아.. 나..추워”

“..옆에 나 있어.. 있으니까.. 괜찮아..”

죽어가는 은하의 말에 하늘이는 점차 공포감이 밀려져 오기 시작했다.

그때, 119의 구조대가 오는 것을 본 하늘이는 이내 안색이 좋아지며, 끌어안은 은하를 보며 말했다.

“119야! 119가 왔어! 은하야 이제 괜찮..”

은하의 어깨가 어째서인지 차갑게 느껴졌다. 은하의 숨소리가 들리지를 않는다. 은하의 눈이 감긴 채 뜨지를 않았다. 언제나 보인 미소는 없어졌다. 은하의 눈에는 눈물 자국만이 남았고, 은하의 몸에 하얀 천이 덧씌워지면서, 그대로 시신이 된 채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묻지 마 살인사건이었다. 범인은 그저 본인의 스트레스를 사람들에게 풀어버리려고 했으며 거기에 은하가 휘말린 것. 그것뿐 이었다. 그 어처구니가 없는 살인 하나 때문에 하늘이의 삶은 통째로 망가져 버렸다. 하루 내내 방에 틀어박혀 울기도 하고 입에 대지도 않는 술에 의지하기도 하며, 매일을 악몽 속에 갇혀 살았다. 그렇게 망가져 가던 삶이 기적처럼 다시 회복되어갔었지만 이젠 또다시 이별이 하늘이와 은하의 앞에 들이닥쳤다.

조용히 울고 있는 은하의 몸을 끌어안으며 하늘이는 말하였다.

“...참 비극적인 이야기네. 평생을 사랑했는데 결말이 이따위 끝난다는 게..”

말을 하면서도 하늘이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수많은 사람 중에 하필 우리한테 이런 건지... 난 정말 모르겠어...”

세상을 모조리 부정하고, 아무리 하늘에 대고 한탄을 하더라도 아무것도 바뀌는 건 없었다. 그저 눈앞에 현실이 더더욱 가까이 다가올 뿐이기에, 그렇기에 하늘이는 마음에 각오를 다지기 시작했다. 이젠 이별을 해야 하는 순간이니까.

“평생 안 잊을게. 평생 안 잊을 거니까. 이젠 마음 놓고 폭 쉬어도 돼. 나 위로 시킬려고 애써 밝은 표정도 짓을 필요 없어 말장난 치지 않아도 되고, 짜증 날 때는 짜증 난다고, 화날 때는 화난다고 제대로 말해. 그거 더 너한테 어울리니까... 나 같은 남자 만나서 고생 많았다. 미안했고. 사랑한다.”

말을 끝냄과 동시에 은하의 몸을 더더욱 파악 끌어안기 시작했다.

하늘이의 말을 들으며 울던 은하는 목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지만, 더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이 마음속에

서부터 올라오는 목소리를 힘차게 내보냈다.

“나도 사랑해!.. 내가 어디에 있든. 저승에 있든 천국에 있든 간에 절대로 안 잊을 거야.. 안 잊을 게.. 먼저 죽어서 미안해.. 사랑해.”

은하는 그렇게 본인의 마음속 쌓인 말들을 모조리 다 토해냈고, 그렇게 슬피 울던 둘은 조용히 입을 맞췄었다.

...

그렇게 서로에게 기댄 채 감정을 추스르며 마음을 정리하던 그 순간. 하늘이의 휴대폰에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다.

“...여보세요.”

[준비되면 나와라. 지금 집 앞이니까. 상복 입고 나와.]

뚝.

“뭐야. 자기 할 말만 하고.”

“..가는 거야?”

눈물을 그친 은하는 하늘이에게 물었다.

“아니. 같이 가는 거야.”

그 말에 은하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무슨 소리인지를 물으려고 하였지만 이내 무언가 깨달은 표정으로 조용히 하늘이의 뒤를 따르기 시작했다.

집 밖을 나왔을 땐 놀랄 수 밖에 없었다.

종현이와 태진이, 그리고 승현이까지. 상복 차림으로 장의차를 뒤에 세우고 엄숙한 분위기로 집 앞에 서 있었다.

“좀 늦었네?”

태연하게 평소 목소리로 가볍게 말을 건네는 종현이에게 나는 어떠한 말도 입에서 나오지를 않았다. 그만큼 지금 이 상황이 매우 당황스럽기 그지없었다. 간신히 정신을 부여잡고 종현이에게 물었다.

“지.지금 이게 다 뭐야?”

“장례식.”

“...아니 그니까. 그게 무슨 소리인거야.”

“너 은하가 죽고 장례식도 제대로 못 치러줬다며?”

사실이다. 은하의 죽음 이후 제대로 된 장례 절차도 못 밟고 화장 후에 집에서 박혀 있기만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했어 제대로 작별할 수 있도록 말이야.”

“그래 지금 아니면 언제 마지막 인사할 수 있겠냐?”

“지금 이거 준비하는 데 고생 좀 했다. 그렇니까 이번엔 제대로 작별인사 해라.”

종현이의 말에 태진이와 승현이가 동조하며 하늘이에게 말하였고, 하늘이는 약간 눈물을 차오르는 걸 애써 숨기며 말했다.

“.....고맙다.”

“고마우면 어서 타. 장소도 너희 둘이 가장 익숙한 데에 잡아 왔으니까. 뒤에 있는 흰 장갑도 끼고”

하늘이는 흰 장갑을 끼고 유골함을 들어 뒷좌석에 탔다. 태진이와 종현이는 하늘이의 좌석과 바로 옆 좌석을 하나 남기며 자리에 앉았다.

“처음 타보는 데 좌석이 되게 폭신한 거 같다. 그치?”

“그러게.”

어느 순간 빈 옆 좌석에 앉은 은하는 감상평을 남기며 해맑게 웃었다.

“...굳이 그렇게 안 웃어도 된다니까.”

“히히. 이건 그냥 내가 즐거워서 웃는 거라고.”

“...그래 웃는 게 훨씬 낫지.”

그렇게 떠들 듯이 대화를 나누던 둘을 백미러로 보던 종현이는 물었다.

“지금 옆에 있는 거냐?”

“...응”

그 말에 종현이, 태진이, 승현이가 동시에 놀랐으나 이내 차분해진 태도로 다시 자세를 잡았다.

“푸흠.. 그렇게까지 각지게 자세 잡을 필요가 있는 거야?”

“당연하지. 지금 이진 장례식이니까. 고인의 예를 다 하는 거라고. 뭐 유은하, 개가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지만.”

“우이씨. 본인 장례식에 본인 당사자가 이렇게 있는 데 기분 좋을 리가 있겠냐? 박태진!”

그 말에 하늘이는 쓴웃음을 지으며 바깥 풍경을 보다가 이내 조용히 눈을 감아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을 기다렸다.

목적지에 도착하자 하늘이의 얼굴에 찬 바닷바람이 맞이하였다.

“..여긴?”

“너랑 은하가 제일 좋아하는 곳.”

찬 바다가 지평선 넘어까지 펼쳐져 있었고, 갈매기는 기웃거리고, 푸른 바다는 본인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뽐내며, 이 자연풍경을 꾸며주었고 마지막으로 어스름한 황혼빛이 바다를 감싸 주고 있었다.

“...여긴 또 어떻게 알고 온 거야.”

종현이는 하늘이의 말에 대꾸조차 하지 않은 채 진지한 목소리로 자기 할 말만을 하였다.

“제대로 작별하고 와. 뒷정리는 다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고맙다. 종현이도 태진이도, 승현이도. 다 고마워.”

“됐어. 친구인데. 뭔들 못 해주겠냐... 가자.”

그 말과 함께 친구들은 떨어져 갔다. 작별에 있어 방해될까 봐 자리를 피해준 것에 하늘이는 다시 한번 더 고마움을 느꼈다.

“갈까?”

“그래!”

마지막까지 에너지가 넘치는 모습에 하늘이는 웃으며 바다로 걸어갈 수 있었다.

“여기도 꽤 오랜만이네.”

“그러게.. 학생 때 처음 오고 나서 거의 매년 연례행사처럼 왔었는데.. 워낙 올해 사건이 좀 많아서 여기 근처도 못 왔었네.”

“...,”

기억으로만 남은 옛 추억에 잠시 잠기던 둘은 천천히 바다에 발을 담그기 시작했다.

이젠 마지막이다. 라는 생각으로 하늘이는 들고 있던 유골함을 열었다.

그 모습을 본 은하는 애똥한 표정으로 해를 등지며 하늘이의 앞에 섰다.

“이젠 진짜. 이별이네... 그리울 거야.”

“...아니 이별이 아니라 작별이야.”

“...?”

곧바로 울 것 같던 은하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내가 청년이던 때를 지나 중년이 되고. 또 시간이 지나 노년이 되고 이윽고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을 때 너랑 다시 만나게 될 테니까.”

멍하니 하늘이의 모습을 보던 은하는 뜻을 깨닫고 곧바로 웃음을 터트리기 시작했다.

“푸흐흐. 죽더라도 아쉽지는 않겠네. 울 사람이 있으니까. 기다리는 보람이 있겠어.”

마찬가지로 웃음을 짓던 하늘이는 땃가루를 천천히 바다에 흩날리었고, 은하의 모습은 점차 흐릿해져 가기 시작했다.

“내가 사라지더라도 행복하게 살아야 해?”

은하의 모습이 사라질 때마다 마음이 무너지는 기분인 하늘이지만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기 시작했다.

“...그게 가능할까?”

“응. 가능하고말고. 나보다도 더 멋진 여자 만나고 나랑 놀 때보다도 더 즐거운 추억들 쌓고, 나랑 있을 때보다도 더 행복하게 살아야지. 꼭! 약속이야!”

어느샌가 웃음이 아닌 눈물을 흘리는 은하였지만 그래도 본인의 할 말을 곳곳이 이어 나아갔다.

“...가족이 생기면 언제나 즐겁게 해주고, 아내가 생기면, 무조건! 친절하게. 대해야 한다. 알았지?”

“...은하야”

“자식이 생기면 그때는 책이나 그런 거 사서 읽게 해주고 너무 느슨하게 대해선 안 돼. 그렇다고 너무 혹독하게 몰아넣지는 말고. 그리고. 또.”

은하의 감정을 충분히 전달받은 하늘이는 은하의 말을 손짓으로 잠시 멈추며 작별의 마지막 기억을 좋게 남기기 위해 본인의 얼굴에도 흐르던 눈물을 손등으로 닦고선 말했다.

“..은하야. 하고 싶은 말 충분히 다 알겠어. 그러니까. 그만 울어. 너는 웃는 게 훨씬 더 보기 좋으니까. 작별인사를 하면서 하는 건 어울리지 않잖아.”

은하의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는 걸 본 하늘이는 슬픔을 애써 떨구며 웃음을 지어 마주 보았다.

“너한테 해주고 싶은 만큼 남들에게 베풀고 살게. 기부도 하고. 봉사도 하고, 밥도 사주고, 생일도 잘 챙겨주고, 여행도 같이하고, 그런 식으로 친구들하고도 친하게 지내고 배우자가 생기면 누구보다도 더 잘 대해 줄 테니까. 그러니까. 그만 울고 웃어. 은하야.”

하늘이의 마지막 말에 은하는 눈물을 멈추고 태양 같은 미소를 환하게 피워냈다. 그리고 마음속 마지막 말 한마디를 큰소리로 외쳤다.

“사랑해.”

그 말을 들으며 하늘이는 은하의 마지막 뺨가루를 하늘에 흘뿌렸고. 천천히 은하는 완전히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그 후 황혼만이 바다 위에 서 있는 하늘이를 바라볼 뿐이었다. 하늘이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미소를 잃지 않았고, 이내 마지막으로 말하였다.

“나도 사랑했어. 은하야..”

...

“오늘 정말로 고마웠다. 애들아.”

하늘이는 장의차에서 내려 친구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그렇게 고마우면 나중에 밥이라도 한번 사줘. 그거면 충분하니까.”

종현이는 그렇게 쿨하게 대답하며 장의차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늘이는 가던 차의 뒷모습을 보다 집으로 들어가려는 데 그때 친구들의 작별인사가 하늘이의 귀에 들어왔다.

“야.야! 강하늘! 나는 2번 사줘! 차 구하느라 힘들었다고!”

“나는 3번!! 애네들보다 더 힘들게 뛰어다녔어!”

“야! 야! 위험하니까 창문 밖으로 몸 내밀지 마. 이것들아!”

그 모습에 하늘이는 웃으며 집으로 들어갔다.

어지럽혀져 있던 집을 몇 번에 걸쳐 치우다 보니 금세 예전의 모습을 되찾았다. 어느샌가 날이 어두워지는 걸 보며 하늘이는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였다.

“슬슬 자야겠네...”

마지막으로 거실을 치우던 와중 하늘이의 눈에 어느 한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이건..’

그 사진을 웃으면서 바라보던 하늘이는 이내 책상에 놓고 불을 꺼 잘 준비를 하였다.

책상에 놓인 꽤 오래된 사진에는 여자애와 남자애가 서로 불을 잡아당기는 모습이 찍혀있었다. 그 사진에 아래쪽에는 작은 글씨체로 이런 말이 적혀있었다.

너와의 첫 만남을 기리며.

END